

광주대, 호남권 AI 그린바이오 연구 특성화 대학 도약

농림부 '대체단백 원천기술 개발' 추진
김성준 교수 '컨소' 참여 수행기관 선정
오는 2030년까지 84억 투입 연구 진행
김동진 총장 "핵심기술 확보·산업화 기여"

광주대가 AI 그린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며 호남권 AI 기반 그린바이오 연구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6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대체단백질 분야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해당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미래대응식품)'의 일환으로, 'AI 기반 차세대 지속가능 대체단백 소재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AIST, 광주대학교와 관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광주대는 김성준 AI-X융합학과 교수를 책임

자로 컨소시엄에 함께 했으며, 이번 사업 참여로 광주대가 AI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연구는 오는 2000년 12월까지 약 5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84억원 규모다.

대체단백질은 콩, 밀, 효모 등 식물성 또는 미생물 유래 단백질을 활용해 기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 저감과 식량안보, 친환경 소비 확산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

근에는 맛과 식감, 영양 균형까지 개선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과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대체단백질이 지닌 맛과 식감, 영양 불균형 등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광주대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융합연구 역량을 토대로 대체단백 소재의 고도화와 산업 적용 가능성 확대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국책과제 참여를 계기로 AI와 식품·바이오를 접목한 융합 연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동진 총장은 "이번 대체단백질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는 대학의 AI 융합 역량과 그린바이오 분야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참여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세대 대체단백질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광주대학교는 이번 과제를 계기로 호남권 AI 기반 그린바이오 연구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융합형 연구와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욱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도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생태를 탐구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순천 신대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태회랑 플로깅'을 하는 모습.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 학생들, 지역 생태 탐구·환경 보호 나선다

7천259명 '공생의 길 프로젝트' 참여
산·하천·갯벌 등 자기주도적 탐구

전남 지역 학생 7천259명이 지역 생태 탐구와 환경 보호 실천에 나선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 52개팀을 선정해 지역 생태 탐구 등을 본격화한다.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역의 산, 하천, 습지, 갯벌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보호하는 도교육청의 대표 환경 교육 모델이다.

올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 시대에 공생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가능한 생태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3년 155팀에서 시작해 2024년 300팀, 2025년 354팀, 2026년 552팀으로 확대되며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다. 참여 학생들은 팀별로 지역 생태계 이해, 환경 보호 실천, 지역사회 협업 활동을 수행하며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올해도 '영산강 유역 수질 개선' 중점 과제와 일반 탐구 과제를 병행해 운영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이뤄지는 중점 과제는 ▲전문가 멘토링 ▲현장 강의 ▲수질 개선 체험 키트 제공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디지털 생태 탐사지도 웹'에 기록·공유된다. 학생들은 활동 계획과 결과를 상시 탑재해 지역별 사례를 나누고, 누적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한다. 이 자료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돼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와 함께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도보 탐사와 플로깅 등 다양한 생태 체험을 마련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참여형 환경운동을 펼친다. 영산강과 섬진강, 지역 하천과 산림을 무대로 한 활동은 교육현장을 넘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며 지역사회 공동 실천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번달 담당 교사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 상징 캐릭터 공모전, 공생 실천 브이로그 공모전, 학생 환경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활동팀을 시상하고, 최우수 초·중·고 각 1팀에게는 국내 생태 탐방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해 참여 동기를 높인다.

김종만 학생연구정책과장은 "공생의 길 프로젝트는 학생이 삶의 터전인 지역 환경을 이해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전남 학생들이 공생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창업 원스톱 지원"...동강대,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중기부 '모두의 창업' 운영기관 선정
12월까지 오디션...최종우수자 가려
예비 CEO 전문 멘토링·보육 등 제공

동강대가 정부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6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창업지원단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광주권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모두의 창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에게는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창업'은 오는 5월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어를 신청받아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서면평가로 4명만을 선발한 뒤 ▲1라운드

지역 예선(500명) ▲2라운드 지역 오디션(200명) ▲3라운드 권역 오디션(100명)을 거쳐 12월 '전국 오디션(대국민 IR)'에서 최종 우수자 1명 등 5명을 선정한다.

전국 120여개 창업 지원기관이 참여해 단계별 경영 방식으로 유망 창업가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부터 사업화, 고도화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동강대는 이번 프로젝트에 GIST, 전남대와 함께 광주 지역 대학 운영기관으로서 예비 CEO를 위한 전문 멘토링과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창업자를 지원한다.

동강대 창업지원단은 국내 유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고의 창업 사관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또 ▲특화 역량 BI 육성 지원사업* 광주 지역 유일 지역 거점형 주관기관 ▲8년 연속 광주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특화사업' ▲11년 연속 교내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선욱기자

市교육청 "올해 '오월 버스' 100대 운영"

47개교 신청...광산중, 5·18묘지 등 탐방

광주시교육청은 6일 "광주학생들이 5·18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오월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오월 버스'는 학생들이 국립5·18민주묘지 등 주요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우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월 버스'는 지난해 50개 학교 2천800여명의

학생이 체험했으며, 올해도 100대가 운행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47개 초·중·고등학교가 신청하면서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참여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상무관, 5·18자유공원, 전일빌딩245 등 주요 사적지를 탐방하는 코스를 운영하게 된다.

올해 첫 '오월 버스'는 3일 광산중학교 2·3학년 학생 160여명이 탑승해 국립5·18민주묘지, 전일빌딩245 등을 탐방했다. /박선욱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